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 영 삼 의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적극적인 채무 상환 감독 나서야합니다.”

“일류 스포츠 도시 대전을 위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해야합니다.”

“편향없는 역사교육이 실시되어야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김영삼 의원

● 김영삼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990년대 초반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와 주요도심 간 신속한 교통처리를 위해 현도교에서 가수원교까지 총 연장 27.4km 구간을 6개 공구로 나누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 4공구인 원촌교에서 엑스포지하차도, 한밭대교까지 4.9km 구간은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건설하여 2004년 9월 개통했고 운영사와 30년간의 양허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BTO 방식에 따라 시설에 대한 건설과 운영권을 민자사업자가 갖고 소유권은 대전시가

갖게 된 것인데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자는 교통량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자사업자의 건설비용에 대해 대전시가 보증을 섰다는 점입니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일본 엔화채권 130억 엔, 현재 잔여채무 1,400억 원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 대전시가 무조건적인 지급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약 8년 정도의 운영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운영사가 앞으로도 계속 원리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낸다면 대전시의 채무보증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대전시가 건설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무료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운영사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사의 운영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직원은 12명인데 영업소 외주용역 인원 64명을 포함하여 총 7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9km의 구간에 과연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며 2018년도 말 하이패스 설치로 인해 인력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기준 외주용역 인원이 57명에서 2022년에는 다시 64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점들에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2020년 68억, 2021년 69억에서 갑자기 작년에는 176억으로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137억 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수입금은 증가하는 데 반해 운영여건은 그대로인데 운영비도 함께 증가하는 이상한 비례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는 과도한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감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전시가 아닌 주주사 중 한 곳에서 보증을 섰더라면 운영사는 철저하게 경영 다이어트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보증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결국엔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운영사의 폐업신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전시는 약 1,400억 원의 무조건적인 보증을 서주고도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운영사에서 제공한 회계자료만 확인하는 등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운영사 재무제표 자료를 살펴보면 수익률이 25%인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렇기에 의문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대전시가 민간에서 제안한 교통수요 예측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대전시의 행정 실수에 있다고 판단되며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아주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비록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이 오래전의 일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올바르게 바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운영사의 경영상태상 충분한 채무상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보이기에 채무상환을 위한 철저한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운영사 자체의 경영 다이어트 노력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시와 운영사 간의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거나 명확하게 하여 원리금을 매년 얼마만큼 상환하겠다는 명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함께 운영기간 내에 채무가 상환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운영기간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생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은 최근 국내 스포츠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 및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간의 기능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야 하는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역할 및 중요성은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유소년 스포츠정책은 스포츠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까지 나타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경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매년 500팀이 넘는 학교와 클럽에서 참여하는 전국대회 규모의 축구대회입니다.

축구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매년 약 4만여 명의 관계자들이 이 축구대회를 기회 삼아 경주의 유명 관광지, 상업시설 등을 이용해 지역에서 연간 약 70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저는 대전시가 경주시를 롤모델로 삼아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에는 5개 면의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전시에는 수일에 걸쳐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즐길 거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시장께서는 보문산 정상부 상징타워 설치와 가족형 숙박시설 그리고 오월드 내 워터파크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문산을 명품 관광벨트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에 저는 보문산 명품 관광벨트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를 연계한 유소년 축구타운 조성을 제안합니다.

전국의 유소년 축구선수들과 가족 등 관계자들이 전지훈련 또는 전국대회 참여를 위해 우리 대전시를 방문해 지역의 명소와 맛집, 숙박시설 등을 다녀간다면 그들은 노잼도시 대전이 아닌 일류 스포츠도시 대전, 즐잼도시 대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유소년 축구 지원을 통해 제2의 박지성, 손흥민을 대전시에서 배출하는 등 축구광역시 대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소년 축구타운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유소년 스포츠 지원정책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 질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시 관내학교의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학생 1인당 급식단가를 매년 조금씩 인상하고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급식 단가인상 결정을 했고, 이에 올해 3월 신학기부터는 2022년에 비해 소폭 인상된 단가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급식단가가 매년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급격한 물가인상에 따라 학교급식 단가가 맞지 않는 등 급식비 부족으로 인한 급식 운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행 대전시교육청의 급식정책은 급식단가에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까지 함께 묶여있습니다.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학교별 급식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니다.

맛있는 급식을 먹으려면 A중학교로 가라, 내신등급을 잘 받으려면 B중학교로 가라고 합니다.

또 C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는 많은데 급식이 맛이 없어 아이들이 밥을 많이 남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급식의 질 향상이 비단 영양교사 1명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학교급식은 실질적인 물가가 반영된 식품비 확보가 선행된 후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은 학교급식 메뉴를 영양교사가 구성하고 솜씨 좋은 조리사님들의 손맛을 거치는 협업작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리사분들의 근무여건 환경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즉,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의 노력 및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께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단가 현실화 및 식품비 분리정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단가는 매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지원단가를 물가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인 식품비 확보와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대전영양교사회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영양교사와 조리사분들이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학교급식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 학교급식 관련 기자재 확충, 조리사 인력확보 등 현장에 학교급식을 위한 물적·인적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제가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권을 규정하면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의 취지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특별히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종교적 종파성과 당파적 편향성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객관적으로 발생하고 존재한 사건과 자료라면 역사적 진실이란 역사적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개별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갖는 가치와 역할을 후대가 재해석하고 평가하여 얻어진 결론을 말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진실은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와 관점,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유동적 개념입니다.

특히, 현대사와 같이 보다 유동적이고 현재도 진행 중인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일면만을 부각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의식을 은연중에 내면화시켜서도 안 되고 사건의 무의미한 나열로 역사교육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역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견지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는 바를 기본적으로 전달하되 다양한 해석의 관점을 함께 제시하여 다각도에서 사안을 조망해볼 수 있는 시야를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향적이지 않은 교과서의 선정과 교사의 역량이 모두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역사교육은 국정 교과서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은 학교별로 검정도서 중에서 교과서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편향적이지 않은 교과서가 단위학교에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장, 초등교사 및 역사교사의 역량강화 연수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제가 제안한 방안에 대한 견해와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살아 숨 쉬는 역사로서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방향을 제시해준다 할 것입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교육만큼은, 특히 역사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대로 된 교육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님께서서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교통정책과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회 시간을 1시간 정도 조정해 주시고 투자유치와 관련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의원님께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경영 투명성 및 철저한 운영감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미 지난달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이미 선정했습니다.

해서 운영사에 통보를 곧 하게 되는데 시가 선정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서 시의 입장에서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가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생각이고 조직과 인원에 대한 적정성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단할 생각입니다.

경영수지 개선대책으로 시설비 2,00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할 시에도 시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자도로 운영평가에 외부 회계전문가를 앞으로 참여시켜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 감사도 수시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채무상환 방안 및 운영기간 이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부터 통행량 증가에 따른 흑자 전환으로 원금 259억 원을 지난해까지 상환했습니다.

향후 통행수입 증가,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서 민자 운영기간 종료 시 채무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겠다는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 많은 시민들께서 천변도시 고속화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폐지해달라는 의견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폐지하고 채무액을 조기에 시가 상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가 현재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에 지방채가 485억이었던 것이 민선 7기에 7,366억으로 대폭 대전시 지방채가 증가했고 또 민선 7기에 했던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2,192억의 추가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대전시 지방채가 지금 1조 4,04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경영여건이 좀 개선되고 할 때까지는 요금인상 및 운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재정부담이 최소화되고 대전시 경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기에 상환을 비롯한 통행료 폐지까지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요금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이익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또 나아가서 조기에 상환했을 때의 이익과 만료 시까지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영삼 의원님께서서는 유소년 축구타운 조성 또 유소년 스포츠 지원정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문산 명품 관광벨트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를 연계한 유소년 축구타운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에서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들었고 총 80팀이 참여해서 선수 및 관계자 1,200명이 6일 동안 대전시에 참가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는 편리한 접근성과 뛰어난 경기 운영으로 인해서 선수나 학부모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 금년에도 예산증액과 함께 참가규모를 확대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금년에 예산 2억 원에 총 96개 팀이 참여하는 대회를 치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산동의 수련원, 효문화마을 등 숙박시설 또 맛집 관광지도도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향후 조성되는 안영체육시설단지 2단계와 보문산 체류형 관광단지, 특히 콘도미니엄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숲속의 집 그리고 추가로 휴양림에 조성되는 숙박시설을 통해서 유소년 관련된 체육 인프라 또 숙박시설 인프라를 조기에 갖추는 데도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유소년 맞춤형 체육 지원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학교와 연계해서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유소년 유망종목에 대한 성장 기틀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특히 풋살, 탁구, 배드민턴, 야구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펜싱학교, 어린이체능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도

지난해보다는 확대했습니다.

월 지원액도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확대했고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월 지원대상도 2,018명에서 3,16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 생활체육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세계에 한 개도 없는 다목적 리틀야구 돐구장도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리틀야구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한 리틀야구 돐구장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김영삼 의원님께서서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과 역사교육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단가 현실화와 식품비 분리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지난 3년간 급식비를 인상해 왔으며 올해에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래 최대규모인 평균 9.2%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에서는 대전시와 적극 협력하여 물가수준에 맞는 급식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식품비 확보와 효율적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 식품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작년 8월 전담 TF를 구성하여 식품비 분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식품비 분리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분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학교현장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ECO-더 건강한 밥상이라는 정책브랜드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교육 내실화를 위해 영양·식생활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교육부 전국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역연구협의회를 운영하여 식단 및 레시피 연구개발, 학교별 우수사례 공유, 멘토링프로그램 활성화로 학교 간 급식의 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 내 관리자와 급식종사자 간의 소통,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영양교사들을 주축으로 연구회, 맞춤형 컨설팅단, ECO-더 건강한 밥상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덕션 조리기구 확충, 살균수 제조 장치와 실시간 자동기록 위생관리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전면 보급하였으며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에 대하여 매년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리원 업무경감을 위한 자동화 급식기구를 확충하고 학생 수 자연감소에 따른 기준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학교급식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을 형성하고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용 도서임을 전제로 학교 단위로 교과협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대전교육청은 편향적이지 않은 교과서 선정지원을 위해 공정성 확보 및 가치중립적인 교과서 선정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학교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을 위하여 학생 참여·체험형 역사교육 및 향토 역사문화동아리 운영, 고등학생 국외역사현장탐방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원역사교육연구회 및 역사·나라사랑 현장체험연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 운영, 충청권 역사동아리 근현대사적지 탐사 및 충청권 교원직무연수 과정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대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여·체험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질 높은 학교급식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김영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